

연구요약

- 제주지역에서 추진하여 왔던 마을 만들기의 성공적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에서 본 연구를 수행함
 -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집단 효능감에 대한 개념을 도입함
 - 제주올레 탐방객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삶터 만들기, 주민공동체 만들기, 인재 육성)에 대해 집단 효능감별 특성을 조사하였음
- 지역주민의 제주올레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음
 - 집단 효능감이 높은 주민일수록 제주올레가 마을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하고 있었으며, 집단 효능감별 큰 차이는 없었음
- 지역주민의 마을공동체 요소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음
 - 삶터 만들기: 집단 효능감별 차이가 적은 항목(‘올레탐방이 마을 발전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와 ‘우수한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항목(‘집단 효능감’별 차이가 적으나,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은 상품 보유’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체류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구분됨
 - 주민공동체 만들기: 대부분의 항목에서 집단 효능감별 인식의 차가 30%p 이상 나타나고 있어, 주민공동체 활성화가 가장 시급한 요소임
 - 인재 육성: 인재 육성과 관련하여 마을 공동의 경비로 지출하는 문제에 대해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항목이 비용이 적게 드는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제주올레를 이용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지역주민의 집단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시급함
 -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민의 친화력을 증진하고 주민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함

- 마을공동 사업 수행으로 이익 발생시 이익 배분에 대한 대응책을 사전에 강구함
- 마을 공동의 자원을 이용하여 마을공동체 사업(communitv business)을 추진할 경우 참여하지 않는 주민에 대한 이해 증진이 필요함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마을회장이나 이장 중심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별도의 사업추진 주체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